코스피 ▲ +2.56 (2548.86) | 코스닥 ▼ -10.28 (719.41) | 원·달러 환율 ▲ +8.40 (1444.90) | 금리(국고채 3년) ▼ -0.005 (2.300)

2025년 4월29일 화요일 전남일보

'유리천장 여전'… 지역사업체 여성 승진 비율 '급감'

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광주 4.4%…전년 대비 9.7%p ↓
전남, '여성 승진 느려' 인식 1위
"육아 휴직·기업 문화 개선해야"

고용 및 승진 기회에서의 성 평등 실현이 사회적 과제로 꾸준히 강조돼 오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사업체들의 여성 승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가 한 해 동안 모든 직급의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3년 광주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승진자 비율은 4.4%로 전년 대비 9.7%p 급감했다. 이는 전국 평균 5.8% 보다도 낮은 수치로,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여성 승진 비율은 2019년 20.7%, 2020년 11.9%, 2021년 16.1%, 2022년 15.5% 등으로 두자릿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3년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여성 승진 비율은 9.4%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으나 광주와 마찬가지로 2019년 12.2%, 2020년 14.0%, 2021년 21.7%, 2022년 11.3%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 한자릿수대로 내려앉았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꼽히는 울산(1.1%)과 관광도시 제주도(2.0%)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비율도 2019년 23.1%에서 2020년 13.4%로 급감한 이후, △2021년 16.8% △2022년 9.7% △2023년 5.8%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임원' 중 여성 인력 수는 전남 27.5%·광주 26.6%로 전국 상위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21.7%보다도 높은 수치다.

채용, 평가, 배치,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얼마나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항목을 나눠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에서 광주의 평균 점수는 2.3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42.1%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 비율은 6개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4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대전광역시(28.9%)보다도 13.2%p 높았다. 전남의 평균 점수는 2.4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1.9%였다. 평균점수는 강원도(2.4점)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전남은 특히 '승진' 관련 항목에서 타 지역에 비해 성평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승진이 느리다'는 항목에서 전남의 평균 점수는 2.0점, '그렇다' 응답 비율은 26.3%로, 평균 점수와 비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광주는 각각 2.0점, 22.3%로 긍정 응답 비율은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하위직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드물다' 항목에서도 평균점수 2.2점, '그렇다' 비율 33.8%로 점수와 비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비교적 남성보다 여성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항목에서도 '그렇다' 응답이 24.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 응답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비율이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19.4%)와 비교해도 5.4%p 차이가 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응답하게 한 결과 광주지역은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 휴직 사용(21.3%)'을, 전남지역은 '사회 인식 및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19.5%)'을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광주·15.1%)',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전남·16.5%)'이 뒤를 이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근거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용 품목을 선보인 가운데 본관 6층 캉골 키즈에서 직원이 어린이 날 기념세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고액알바' 유인…청년층 노린 신종 보험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당부

최근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한다.

특히 SNS를 주로 활용하고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 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을 분석한 다음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보험 계약자의 고액 진단금 등을 주로 위조 대상으로 삼는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이처럼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신세계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하세요"

스카프·벨트 등 인기제품 선봬

광주신세계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전할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서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시즌소품 GIFT' 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스니커즈와 샌들, 스카프와 벨트 등 선물로 인기가 높은 제품들이 다수 마련됐다.

스칸디나비안 프리미엄 덴마크 슈즈 브랜드 '에코'는 지난 SS시즌 상품을 40% 할인 판매한다. 이에 따라 에코의 인기 스니커즈들을19만800원~25만36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홍콩에서 탄생한 컨템포러리 브랜드 '스타카토' 역시 인기 상품들을 50% 할인해서 판매한다.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카토는 여성용 샌들과 스니커즈 등 주요 제품들을 9만9000원~15만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닥스'에서는 스카프와 지갑, 핸드백 등을 준비했다. 닥스 스카프는 4만원~11만9000원, 닥스 핸드백은 27만8600원~39만840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본관 6층 아동복 매장에서는 어린이 날 기념세트를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캉골키즈'는 쿨맥스 티셔츠와 반바지, 양말을 담은 기념세트를 정상가(10만1900원) 대비 24% 할인한 7만7000원에 내놓는다.

'블루독베이비'의 베이비 수영복은 10만9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프랜치캣'의 여름 티셔츠, 반바지 세트는 12만5000원에서 7만7000원이라는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바베파파'는 칫솔 20개와 치약 4개를 담은 어린이 날 기념세트를 12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50% 이상 할인해서 판매한다.

어린이 날 기념세트들은 인기 제품들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조기매진될 수 있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선물을 고민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인기 품목들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인기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중진공-전남일자리진흥원, 온라인수출플랫폼 추진

내달 12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지역中企 B2B 해외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중기일자리진흥원)과 함께 다음달 12일까지 '2025년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플랫폼 사업은 중진공과 중기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 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B2B 수출을 희망하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으로, 선정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입점, 온라인마케팅, 해외바이어 매칭 및 무역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받는다.

신청기업 중 총 20개사를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기업에는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페이지 및 기업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참가 대행 △구매오퍼 사후관리 및 수출계약 지원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고비즈코리아에 회원 가입한 중소기업 누구나 직접 제품 등록을 통해 B2B 온라인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제품을 등록한 중소기업은 입점(등록)제품에 대한 해외바이어 구매오퍼가 접수될 경우 고비즈코리아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플랫폼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상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성료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운영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최근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김용욱 원산지관리사가 강사로 나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및 사용 전 준비사항 △기초데이터 이해와 작성 △기초데이터 업로드 및 오류수정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빙서류 생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은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